

식민지 시기 번역 여성 전기 『世界名婦傳』 연구

김성연*

차례

1. 서론
2. 『세계명부전』의 발간 상황
 - 2.1. 총서 소개 및 번역자·번역 원본 규명
 - 2.2. 일본어 여성 열전의 탄생 상황과 조선의 사정
3. 『세계명부전』의 젠더·시대·장르 간 비교
 - 3.1. 서양부인의 현모양처 서사
 - 3.2. 1907년에서 1922년으로: 『라란부인전』에서 ‘로란부인’으로
 - 3.3. 『세계명부전』 번역에서 『조선명부전』 창작으로
4. 결론

국문초록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세계명부전』은 1922년부터 1937년까지 4권이 발행된 식민지 시기 대표적 번역 여성 전기이다. 한성도서는 출판부장 장도빈의 관여 속에 번역 ‘위인전기총서’를 기획 간행했는데 출판사 실무진이자 인기 대중작가 노자영이 『세계명부전』의 역자로 참여했다. 『세계명부전』을 발간한 한성도서는 문화통치기를 맞아 대규모 민간 자본과 언론·문학·역사계 인물을 확보하여 설립되었고 기업체형으로 운영된 출판사였다. 따라서 한성도서는 1919년 3·1운동 직후 문화운동·계몽운동적 성격을 띠며 세계적 지식의 유입에 앞장섰지만 현실적으로는 총독부 검열에 통과될 수 있으며 상업적 경쟁력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 2010-1-0026)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연세대학교 국문과 강사

도 있는 출판물을 발간해야 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발간된 『세계명부전』은 1890~1900년대 발간된 서양 서적을 참조로 탄생한 1900~1910년대 일본어본 여성 열전들을 다수 참조하여 편집·번역한 산물이다.

남성 전기와의 비교를 통해 『세계명부전』의 특성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명부전』이라는 여성 전기는 개인 단행본이 아닌 ‘열전’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개별적 특수성이 조명되기보다는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결국 현모양처 서사로 귀결된다. 따라서 여성 전기는 ‘공적 영역’의 ‘공인’으로 조명된 남성 전기와는 다른 삶의 서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의 서사에서는 사회와 가정, 공과 사의 구분이 사실상 없었다. 또한 인물들의 내면적 고투는 노출되지 않고 본분에 충실함을 강조하여 기능적 인간으로 형상화된다.

『세계명부전』은 그 발간 전후 전기물과의 대조를 통해 통시적 존재 좌표를 살펴볼 수 있다. 『세계명부전』 중 ‘로란부인’은 1907년에 『라란부인전』로 번역된 전사(前史)가 있어 이들의 비교를 통해 시대별 번역 전기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또한 『세계명부전』 이후 발간된 『조선명부전』과의 비교를 통해 번역 전기가 창작 전기에 미친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한성도서 번역 전기물 책임자였던 장도빈은 『세계명부전』이 발간된 지 3년 후 『조선명부전』을 직접 저술·간행하는데 그 인물 선별 기준과 구성이 『세계명부전』과 유사한 측면을 보였던 것이다. 영미권 여성 전기들을 참조로 탄생된 일본어 여성 전기의 직접적 영향력 속에서 탄생한 『세계명부전』이 『조선명부전』으로 귀결되는 경로는 조선의 근대적 정체성 형성에 서구화와 식민화의 문제가 가로 놓여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핵심어 : 『세계명부전』, 『조선명부전』, 『라란부인전』, 한성도서주식회사, 번역전기, 서양여성전기, 현모양처 서사, 서구화, 식민화

1. 서론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세계명부전』(1923)은 서양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번역 위인전기물로 1922년부터 1937년까지 15년 동안 4권이 발행된 스테디셀러물이다. 1910~1920년대 이렇다 할 다른 여성 번역 전기물의 기록 및 현존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세계명부전』은 식민지 시대의 여성 위인상을 반영·선도·혹은 강화한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25명의 전기로 이루어진 『세계명부전』에는 애국계몽기 영웅전 주인공인 잔다르크와 라란부인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따라서 『세계명부전』은 1900년대 여성 전기인 『애국부인전』(1907)과 『라란부인전』(1908)의 뒤를 잇는 1920년대의 대표적 여성 번역 전기물이다. 한성도서의 베스트셀러인 노자영의 연애서간집 『사랑의 불꽃』(1923)이 초판 2000부, 재판마다 1000부를 찍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세계명부전』의 식민지 시기 발행부수를 추정하면 5000부 정도 발행·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독자는 비단 여성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남성 전기는 남성을 독자로 지목했지만 여성 전기는 남녀 모두를 독자로 호출했기 때문에 그 독자층이 오히려 두터울 수 있었다.¹⁾ 따라서 『세계명부전』은 여성과 남성의 여성상에 공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²⁾

1) 『서사건국지』나 『태리건국삼걸전』이 ‘군자’라는 남성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된 반면에 『라란부인전』과 『애국부인전』은 ‘무론남녀’, ‘유지한 남자와 부인’이라는 남녀 독자를 상정하고 있었으니 이들 여성 번역 전기물의 타겟 독자층은 남녀를 포함하고 있었다.

2) 『세계명부전』의 <서문>은 이 출판물이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임을 표방한다. <서문>은 여성이란 고금을 막론하고 꺾박을 당한 존재이니 그 중에도 “자기의 개성을 적나라히 발휘한 여성”을 보면 감탄과 경복을 금치 못한다면서 여성운동이 일어나 “해방의 소리가 요란한 금일”에 이르러 그 “여명의 눈뜨는 조선사회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고자 이를 편찬한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따라서 『세계명부전』 텍스트에 관한 분석은 이러한 ‘여성운동’의 실상, 이상적 여성 주제로 제시된 여성의 구체적 형상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세계명부전』을 통해서 식민지 시기 여성위인전기 번역의 주체·대상·번역 경로를 밝히고, 그 시대적 배경과 서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1920년 번역 여성 전기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하여 ① 남성 전기, ② 애국계몽기 전기, ③ 조선인 여성 창작 전기와의 비교, 즉 ‘젠더·시대·장르’ 상의 세 가지 대조점을 설정한다. 한성도서의 위인전기 총서로서 간행된 『세계명부전』은 같은 총서로 발간된 남성 전기물과 그 서술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열전 속의 25명의 인물들은 필연적으로 계급, 인종, 국적, 업적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서사로서의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여성 전기 분석에 젠더라는 변수를 들고 온 것은 이들 다른 차이를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차이를 더 보기 위해서이다.³⁾ 『세계명부전』에는 애국계몽기 여성 전기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그와는 차별적인 1920년대 산물로서의 특징이 있다. 또한 『세계명부전』은 이후 발간되는 『조선명부전』(1925)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연관 관계에 주목하여 번역 전기가 창작 전기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관한 본격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세계명부전』의 발간 정황

2.1. 총서 소개 및 번역자·번역 원본 규명

2.1.1. 한성도서주식회사와 ‘위인전기총서’

한성도서주식회사는 1920년 민간 자본금 30만원의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인쇄·출판·영업 부서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분리·겸업하며 운영

3) 우에노 치즈코 지음,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204쪽.

한 근대적 기업체형 출판사였다. 이는 식민지 시기 민간자본 주식회사형 출판사로 최초의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러한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1920년부터 시작된 총독부의 문화정책 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립된 한성도서가 표방한 사업 목표와 실제 출판 경향은 당대 조선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었다. 1차 세계대전과 1919년 3·1운동을 직간접 경험하며 식민지 조선인의 세계관은 변화했다. 조선인은 세계적 지형도 속에서 민족의 좌표를 설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사회-민족-국가-인류-세계’라는 관계망을 통한 정체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독립운동은 실패했으며 구국계몽운동은 일상적 차원에서의 문화운동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지식인 계층들이 출판·인쇄 매체를 통해 전개한 문화운동은 독자 개인에게 인격론·근대화론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식민지 지식인 청년들의 세계적 지식 욕구는 급증하게 되었다.

한성도서는 이러한 정황 속에서 『서울』(1919.12.~1921.2.), 『학생계』(1920.7.~1924.6.), 『학등』(1933.10.~1936.3.)과 같은 종합지, 학생 교양 잡지를 발행했다. 『학생계』의 주요 필진인 ‘동인회’ 멤버는 일본 유학생이었거나 『학지광』의 편집진 혹은 필자 출신이 많았다.⁴⁾ 따라서 1920년대 초반 간행된 『학생계』는 1910년대 후반 『학지광』의 뒤를 잇는 청년 지식인들의 담론장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성도서 실무진들은 대체로 서북출신으로 신민회 회원, 오산학교 교사출신, 『대한매일신보』나 『동아일보』 등 언론사의 전직·현직 출신의 인물들이었으니 그 인적 구성원의 특성을 놓고 보면 식민지 민족 계몽운동의 성격을 띤 출판사로 보인다.

4) 동인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웅진, 김도태, 강매, 정대현, 황의돈, 김명식, 노자영, 문일평, 신태악, 이종근, 장도빈, 서춘, 최승만, 최팔용. 명단은 다음의 책을 참조했다. 임경석 편저,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 논형, 2010, 1491쪽.

또한 한성도서는 세계적 저술들을 단행본으로 번역 출간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다. “각종 서적을 편집 출판하며 또한 외국의 유명한 서적을 번역하여 사회에 소개”하는 것이 한성도서 출판부의 사업 목표였으며 이는 당대 다른 주요 서점들이 족보 및 구소설·신소설·실용서·대중서 위주로 발간했던 것에 비해 차별화되는 지점이었다. 이에 따라 일제시대 영창서관, 덕흥서림 등은 척독류, 유행창가집, 고소설 등을 주로 발행했다는 이유로 ‘상리(商利)’를 중점으로 둔 서점이자 출판사였고 조선도서 주식회사 역시 ‘상리’의 맥을 잇는 출판사였다고 보는 반면, 한성도서는 문화사업을 추진한 ‘구국계몽운동’ 출판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⁵⁾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3·1운동 이후 조선에서는 ‘근대화론, 개조론, 자아 혁신, 신도덕과 신인물론’⁶⁾에 대한 열망이 폭발했으며 세계와 현실의 신지식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욕구로 외국서적과 신간 잡지, 세계적 명저의 번역본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⁷⁾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자면 1919년 설립된 한성도서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교양 잡지를 발간했을 뿐 아니라 세계 문학·위인전 번역 발간 사업에 주력했다는 것은 민족계몽운동·문화운동의 실천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운동’과 ‘상리’의 구분이란 사실상 모호할 수밖에 없다. 한 일합방과 3·1운동 실패 이후 구국계몽운동이란 사실상 사사화(私事化)된 문화운동적 성격을 띠게 되어 ‘사상’과 ‘세속’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게다가 오히려 영창서관의 경우 한성도서의 4배에 이르는 분량의 책이 총독부에 의해 발매금지 조치되었기 때문에 ‘영창서관-상리’, ‘한성도서-구국계몽’과 같은 구분은 설득력을 잃는다. 따

5) 이종연, 『‘책’의 운명-조선~일제 강점기 사회 사상사』, 혜안, 2001, 438~439쪽.
 6) 유선영, 『3·1운동 이후의 근대 주체 구성』, 『대동문화연구』66집, 대동문화연구원, 2009, 269쪽.
 7) 『우리사회의 실상과 그 추이』, 『개벽』, 1921.5. 『동아일보』, 1920.5.13.

라서 본 논문은 한성도서가 3·1운동 직후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출판사로서의 성격도 갖지만, 동시에 민간자본금에 기반하여 운영된 주식회사형 출판사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영리를 도외시하지 않고 출판 기획에 임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이런 한성도서가 총독부 검열을 통과하기도 적당하고 독자 소비자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그리고 단기간에 원고를 마련하기에도 유리한 방식으로 출판물을 간행했으며 번역위인전기 역시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기획했으리라고 본다.

한성도서는 애초에 ‘외국의 유명한 서적을 번역하는 것’을 설립 초기 목표로 하였고 실제 출간된 번역물 중에는 위인전기류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기획·번역·서문 작성은 대체로 출판사 내부 인력으로 진행했다. 한성도서 설립의 주역이고 취체역이자 출판부장으로 활동했던 장도빈은 번역 전기물 총서의 서문을 담당했고 전체 기획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성도서 기자였던 김억·노자영은 위인전기총서의 번역을 담당했다.⁸⁾ 즉 한성도서의 번역위인전기는 1920년대 자본력과 인력을 갖춘 출판사의 산물이다.

한성도서의 ‘위인전기총서’는 초기에 40여권까지 출판 예고 광고를 했던 출판사의 야심찬 기획물이었다.⁹⁾ 실제로는 『세계명부전』을 포함하여 13여권의 번역전기물이 간행되었고 그 중 두 권을 제외하고는 남성 개인 전기였다.¹⁰⁾ 여성 전기 두 권 중 한권이 『세계명부전』이며, 다른 한 권은 『잔딱크』인데 그 현존본은 확인할 수 없다. 『세계명부전』은 1922년부터 1937년까지 4판을 찍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¹⁾ 이들의 서문이 쓰여진

8) 위인전 번역에 가담한 외부 인력으로는 교육자이자 언론가인 ‘강매’가 있다.
 9) 한성도서의 설립 기반과 번역전기총서에 관해서는 김성연, 『한성도서주식회사 출간 번역전기물 연구』(『상허학보』30집, 2010. 10.)에서 다루었다.
 10) 남성 전기는 다음과 같다. 『가리발디』, 『한니발』, 『크롬웰』, 『데오쓰테네쓰』, 『월손』, 『프랭클린』, 『타골』, 『아인스타인』, 『성길사한』, 『루소』, 『나의 참회』(톨스토이)
 11) 한성도서주식회사의 문학적 활동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인 김종수의 『일제 강

날짜는 각 판본의 발행일에 맞추어 수정되어갔지만 서문 및 목차는 1923년부터 1937년까지 일치한다.

2.1.2. 번역자

『세계명부전』의 번역자는 춘성 노자영과 ‘양주’¹²⁾라는 인물이다. 1937년 본을 보면 표지와 서언에는 저작자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판권지란에도 ‘저작검발행자’에 출판사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만 그 본문도 입부를 보면 ‘춘성 양주 공편(春城 洋洲 共編)’이라는 표기가 보인다. 당시 번역물의 역자 이름은 표지·서문·본문·판권지 저작자란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외적인 몇 권을 제외한 다른 번역전기물들은 서문 작성자의 서문을 통해 역자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로 그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문도 역자가 직접 쓰고 본문에 역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 『세계명부전』의 경우는 역자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경우에 해당된다.

춘성 노자영은 한성도서의 주요한 필진이었다. 1920년 노자영은 한성도서주식회사 편집부 기자로 입사하여 한성도서 잡지 『서울』과 『학생계』의 기자로서 활동했으며¹³⁾ 1921년 8월부터는 『동아일보』 기자도 겸직했

점기 경성의 출판문화 동향과 문헌서적의 근대적 위상-한성도서주식회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35, 2009. 259쪽)는 1923년도 본을 초판으로 보고 1924, 1928, 1937까지 총 4판의 존재를 기록했는데, 이화여대 소장본에는 ‘1922년 8월 17일 초판 발행’ ‘1923년 1월 20일 재판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1922년도 본이 초판본이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소장본인 1937년판에 ‘4판’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초판을 1922년으로 가정할 때 ‘1922, 1923, 1924, 1928, 1937’까지 중 4판본만 존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현존 판본은 1923(이화여대), 1928(소화3년, 국립중앙도서관), 1937(소화11년,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므로 1924년도 판본을 제외한 ‘1922, 1923, 1928, 1937’이 4판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양주’의 존재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13) 권보드래, 「1920년대 ‘연애’담론과 기획출판」, 『한국현대문학연구』 27집, 2009. 7~30쪽.

다.¹⁴⁾ 그는 고등보통학교 재학생들이 주된 투고자였던 『학생계』 현상문예란의 감상문 부문 선자(選者)였다. 당시 시는 김억, 소설은 오천석, 소품은 이추강이 선자를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성도서 직원이었다.¹⁵⁾

그는 당시 한성도서 영업부에 있던 친구 김진헌의 권유로 연애서간집 『사랑의 불꽃』(1923)을 기획, 저술하게 되고¹⁶⁾ 이는 발간된 해에만 3000부 이상이 팔리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¹⁷⁾ 『세계명부전』은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 노자영이 같은 해에 같은 출판사에서 번역 발간한 것이니 15년간 4판이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노자영이라는 이름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정치적 검열을 통과하고 대중적 요구에 호응해야 했던 식민지 시기 상업적 출판물에 대한 한성도서의 감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중 작가로서의 노자영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중등학교 남자 교사 월급이 50~60원이던 당시¹⁸⁾ 한성도서의 전기물 번역료는 2~3백 원 정도로 그 보수는 높은 편이었으며¹⁹⁾ 따라서 번역위인전기는 필자나 출판사 측에서 소위 돈 벌이가 되는 출판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자영은 『세계명부전』을 번역하던 시기 각종 잡지에 인물전을 게재한다. 그는 「강철왕 카네기」²⁰⁾, 「여성 운동의 제일인자 엘렌케이」²¹⁾ 등

14) 『동아일보사1』, 동아일보사, 1975. 421쪽.

15) 이추강의 본명은 이종준인데 그의 한성도서 내 직위는 전무였고, 오천석은 『학생계』의 주간, 노자영은 편집원, 김억은 기자였다.

16) 노자영, 『유수낙화집』, 청조, 1935. 58~59쪽.

17) 「도서관과 서점에 표현되는 조선 문화의 징조」, 『동아일보』, 1923.12.25.

18) 유선영, 「3·1운동 이후의 근대 주체 구성」, 『대동문화연구』 66집, 대동문화연구회, 276쪽.

19) 한성도서 번역위인전기물 총서 중 『잔다르크』, 『한니발』, 『월손』, 『프랭크린』의 번역을 담당했던 김억은 당시 번역료로 200~300원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잔다르크전』이나 『한니발』 전기 가튼 것도 번역하여다 주면 2,3백원씩 주었스니까. 그때는 원고료라고 일흔짓는 돈을 상당히 만져보았지요.”(김억, 「받아본 원고료」 『삼천리』 1932.5.15.)

20) 『학생계』 1호, 1920. 『카네기』역시 하쿠분칸(博文館)본(『カーネギー』1901)이 있다. 하쿠분칸본 「成吉思汗」 뒤 광고면에는 “미국 대부호, 입지의 사표, 성공의 모범 카네기”라고 광고되고 있다.

인물 소전을 지속적으로 썼으며 앞서 언급한 연애서간집 『사랑의 불꽃』에서는 이 엘렌케이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라는 당대로서는 새로운 도덕을 뒷받침해주는 권위 있는 이론가로서 등장시켰다. 1910년대 이미 조선에도 엘렌 케이이 소개되었지만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5년 이후였으며²²⁾ 따라서 노자영이 『세계명부전』 번역 작업 전후시기에 보인 서양 여성 인물 소개 활동은 선도적인 것이다. 노자영 뿐 아니라 다른 위인전기 번역자 김억, 강매 역시 한성도서의 전기 번역에 참여하던 시절, 다른 지면·강연장에서도 서양 전기의 번역 소개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다.²³⁾ 단행본 전기 번역 작업에 참여한 필자가 다른 지면에도 해당 인물, 혹은 다른 인물 전기와 관련된 글을 남기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번역 작업의 영향력이 단행본 한 권에 그치지 않고 신문, 잡지, 강연 등과 연결된 문화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1.3. 번역 원본 확인

한성도서 위인전기총서들은 대체로 일본어본의 번역본이었으며, 그 중 하쿠분칸(博文館)본을 원본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²⁴⁾ 따라서 『세계명부전』 역시 일본어 원본이 존재함을 전제로 여성 열전들과 비교해보았으나 목차 전체가 일치하는 저본은 찾을 수 없었다.²⁵⁾ 물론 『賢母と偉

21) 『개벽』8호, 1921.

22)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147쪽.

23) 교사이자 언론가인 강매는 학교, 기독교 계열의 강연의 단골 강사로 ‘위인’을 키워드 삼은 강연을 빈번히 했으며 『아인쓰타인』 전기를 번역하기도 했다. 김억 역시 톨스토이의 『나의 참회』를 번역하던 당시 한성도서 잡지 『서울』에 톨스토이에 관한 글을 게재한다. 『서울』, 8호, 1920, 한성도서주식회사.

24) 이에 관해서는 김성연, 『한성도서주식회사 출간 번역전기물 연구』, 『상허학보』30집, 2010. 10.에서 상술했다.

25) 참고로 『세계명부전』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人』,²⁶⁾ 『內外名婦傳』,²⁷⁾ 『偉人の母』²⁸⁾ 등 현재 원본 확인을 할 수 없는 단행본들도 있으므로 전체 목차가 일치하는 원본의 존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열전이라는 특성상, 또한 저자 표기도 ‘共編’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여러 권을 참조하여 인물 목록을 편집·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총 25명의 세계 명부 목록 중 『近世名婦伝』(1909)²⁹⁾ 과 8항목이 일치하고 『泰西名婦伝』(1901)³⁰⁾ 과 6항목이 일치한다. 『세계명부전』의 “현모양처-빅토리아 여왕” 항목은 『近世名婦伝』의 “良妻賢母の好典型-女皇ヴィクトリア”(양처현모의 호전형-여왕 빅토리아: 필자역)와 제목부터가 거의 동일하다. 또한 『東西名婦の面影』(博文館, 1911)³¹⁾ 과는 8항목이, 『偉人の妻』(博文館, 1912)와는 4항목이 일치한다. 이

一. 賢母 웨슬레의 어머니, 二. 賢母 나폴레옹의 어머니, 三. 孟자의 어머니, 四. 佛蘭西革命의 꽃 로란夫人, 五. 賢母 유고의 어머니, 六. 賢母良妻 빅토리아女皇, 七. 톨스토이家庭教育, 八. 教育家 메리라이온女史, 九. 宗教家 뉘스夫人, 一〇. 博愛慈善家 나이팅게-르女史, 一一. 仁愛의 小設家 스투우夫人, 一二. 政治家의 妻 비스마크夫人, 一三. 政治家의 妻 끌렛쯔스텐夫人, 一四. 英雄의 妻 가리발디夫人, 一五. 露西亞政界의 女傑 노비코프夫人, 一六. 英國女權論의 勇將 포셋夫人, 一七. 佛國新聞界의 女雄 아담夫人, 一八. 佛蘭西政界의 女傑 마담 드 스타-르 女史, 一九. 社會改良運動家 윌라드女史, 二〇. 女流社會主義者 미세-르 女史, 二一. 英國의 勇女 잔, 다크女史, 二二. 天文學者 마리아, 미첼女史, 二三. 印度女詩人 가미니, 로이, 二四. 畫家 로자女史, 二五. 畫家 불톤夫人

26) 『賢母と偉人』(家庭百科全書46), 博文館, 1913.

27) 『內外名婦傳』(科外教育叢書17), 科外教育叢書刊行社, 1906.

28) 모리스·브록, 『偉人の母』, 博文館, 1908.

29) 松浦政泰. 『近世名婦伝』, 大日本文明協會, 1909(大日本文明協會刊行叢書; 第13編)

30) 永山盛良, 『泰西名婦伝』, 勢陽堂, 1901.

31) 『東西名婦の面影』은 박문관본 이전에도 동제목 저서가 발행되었고, 그 인물 목록 역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개척사본은 서양 인물만 다루지 않고 일본, 중국인도 포함하여 ‘맹자의 어머니’편도 있다. 그러나 『세계명부전』의 ‘맹자의 모’와는 내용의 차이가 있어 번역 원본으로 삼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開拓社編, 『東西名婦の面影』, 開拓社, 1900. 2. 高須芳次郎(梅溪)著, 『東西名婦の面影』(家庭百科全書; 第32編), 博文館, 1911.

들 네 편들끼리도 서로 겹치는 항목들이 있다. 목차상으로 보면 『세계명부전』은 다양한 여성 전기들, 예컨대, ‘~妻’, ‘~母’, ‘~婦’을 제목으로 하는 일본 여성 열전들을 참조하여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물 목록이 일치한다고 그 전기 본문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를 들면 『세계명부전』은 『近世名婦伝』과 ‘니폴레온의 어머니’편은 내용이 같지만 ‘메리 라이온’편은 다르다. 『세계명부전』의 ‘메리라이온’은 『東西名婦の面影』과 같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세계명부전』이 일본 여성 열전들을 참조로 인물 목록을 구성하고 개별 전기물을 취사선택한 편집본임을 확인하고 이어서 일본 여성 열전의 발생 정황 및 조선의 여성관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2.2. 일본어 여성 열전의 탄생 정황과 조선의 사정

『세계명부전』이 참조로 했던 일본어본 서양 여성 열전들은 어느 문헌을 참고하였고 어떤 의의 하에 쓰여졌는가? 일본에서는 1900년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다양한 서양 여성 전기들이 발간되었는데, 그 인물 구성을 보면 서로 교집합과 여집합을 보인다. 이 중 『세계명부전』과 8항목이 일치하는 『近世名婦伝』(1909)의 경우는 저자가 저술시 참조로 한 14권의 영미권 여성 전기물 목록을 ‘緒言’에서 밝히고 있다.³²⁾ 이들 영미 서

32) 『近世名婦伝』(1909)이 참조로 한 영미 저술 목록은 다음과 같다.

- Autobiography, by John Stuart Mill, London, 1882.
- Charlotte Bronte, by C.K. Shorter. New York, 1905.
- Famous Leaders among Women, by S.K. Bolton. New York, 1895.
- Famous Sister of Greatmen, by Marianne Kirlaw. London.
- Famous Types of Womanhood, by S.K. Bolton. New York, 1892.
- Girls who Become Famous, by S.K. Bolton. New York, 1886.
- Home Life of Great Authors, by H. T. Griswold. Chicago, 1905.
- Life of Charlotte Bronte, by A. Birrell. London,-.
- Life of Garfield, by W. M. Thayer. New York, 1883.

적은 1880~1906년대 사이 발간된 서양 여성 전기물이다. 저자는 이렇게 다양한 여성 인물 전기를 한 권에 담아 넣은 것이 일본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자부심을 내비치지만 1909년 이전에도 서양 여성 번역 및 창작 열전은 이미 최소 3권 존재했었다.³³⁾ 이를 통해 구성된 인물 목록 중 최다수는 영국인이, 그 다음은 미국인이 차지했으며 프랑스인과 독일인이 그 뒤를 이었다. 1922년 발간된 조선의 『세계명부전』은 이렇게 1880~1900년대 서양 전기물을 참조로 탄생된 1900~1910년대 일본어본을 다시 조합하여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어본의 근간이 된 일본어본의 발간 의도 및 인물 구성 기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초기 일본어본 서양 여성 열전들은 서양 여성의 낮은 기질과 행동을 소개하는 의의와 난점을 밝혔다. 『泰西名婦傳』(1901) <서문>은 서양부인의 기질과 행동이 동양부인과 달라 독자들이 그들의 인정세대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기이하고 낯설어도 그 유래와 정신을 보려하고 이를 자신의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서양 여성 번역 전기사로서는 초기에 해당하는 1901년 본은 서양 전기가 서양인의 인정세대를 다름으로써 독자에게 줄 낯설음을 주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1911년 『東西名婦の面影』의 <머리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여성 인물의 선택 기준뿐 아니라 기존 전기와의 차별성을 언급하고 있다. 『東西名婦の面影』은 역사물·전기물이 유행하는 당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다운 여성, 여자의 장점을

The Romance of Woman's Influence, by A.Corkram. London, 1906.

The Women of the Salons and other French Portrait, by S.G.Fallentyre. London, 1901.

True and Noble Women, by H.C. Ewart, London, 1901.

Twelve Notable Good Women, by R.N. Carey. New York, 1902.

Women of Worth, by Lee and Shepard Publishers. Boston, -.

33) 永山盛良, 『泰西名婦傳』, 勢陽堂, 1901. 『内外名婦傳』(科外教育叢書17), 科外教育叢書刊行社, 1906. 모리스·블록[他] 『偉人の母』, 博文館, 1908.

발휘한 것들만 주로 수록했으며 따라서 분방한 여성은 배제하고자 했다고 밝힌다. 이 책은 또한 동서 현철(賢哲)이 남긴 금언을 삽입하고 교훈의 재료로 삼음으로써 종래의 전기와 차별화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즉 『세계명부전』이 참조하여 번역·편집한 일본어 원본들은 서양의 이질적 삶에 보일 독자의 거부반응에 대한 우려 속에서 소개되기 시작했고, 그 인물 목록은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은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로서는 전기에 금언이 수록되어 교훈을 전하는 방식은 이전 전기물과 다른 새로운 전기 서술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메이지 시대 이래로 일본에서는 여성의 열전, 그중에서도 ‘위인의 처’나 ‘위인의 어머니’를 제목으로 한 저서들이 다수 출간되었다. 하쿠분칸(博文館)은 ‘家庭百科全書’ 시리즈로 『東西名婦の面影』(博文館, 1911), 『偉人の妻』(博文館, 1912), 『賢母と偉人』(博文館, 1913)등을 발간했으며 이들은 대체로 일본인 작가가 저술한 책이었으나 『偉人の母』(博文館, 1908)는 Maurice Bloch 저서의 번역본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책은 시대적 요청의 산물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가정이 일국의 근본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그 가정을 선량하게 하는 국가적 역할이 여성에게 부과되면서 ‘양처현모’에 대한 요구가 일어났던 것이다.³⁴⁾ 국민인 남성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중시되었으나 동시에 여성의 사회 활동도 장려되어 독신 여성의 사회적 사업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일었다. 허나 기본적으로는 국민국가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담당하는 여성을 육성하기 위해 서구의 ‘독신여성’ 모델을 견제하고 그와 극을 이루는 ‘양처현모’를 강조했다.³⁵⁾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일차 세계대전을 거쳐 더욱 강화되었다.

34) 가토 치카코, 『‘제국’일본에서의 규범적 여성상의 형성』,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 과 젠더』, 하야카와 노리요 외, 이은주 옮김, 소명, 2009, 85~91쪽.

35) 가토 치카코, 위의 글, 102쪽.

이와 같은 ‘양처현모’를 근간으로 하는 일본의 여성관과 여성 교육은 한일합방 이후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조선의 여성 교육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조선 역시 19세기 말부터 여성교육의 필요가 제기되어 1905~1910년 사이 설립된 여학교 수가 174개에 이르렀으나³⁶⁾ 이들 여성 교육의 목표는 기실 현부·현모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³⁷⁾ 전통적 여성 교육에서는 ‘규방’ 안에 한정되던 여성의 존재가 가정 내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으니 이는 사실상 전통적 의미에서의 여성의 역할에서는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애국계몽기 이래로 적극적으로 전개된 ‘남편의 협력자, 내조자, 친구로서의 아내상,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어머니상’은 서양의 그것을 모범으로 한 ‘여성상’³⁸⁾ 이었던 것이다. ‘여필종부’ ‘부부유별’로 대표되는 이전의 전통적 ‘내외법’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이토록 부각되고 강조되지 않았었다. 이렇듯 전통적 현모양처상에 보다 적극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식의 변화가 있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여성은 ‘가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개화기를 거쳐 도시화와 사회 구조의 변동으로 가족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점차 가족 형태가 변모했고 그 와중에 남성과 아동이 국민으로 호출되면서 자녀 교육에 있어 ‘어머니’의 자질과 ‘아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한 부분도 있었다.³⁹⁾ 이후 제도적·집단적·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여성 운동 역시 자율적 개성을 추구하는 여성의 탄생보다는 가정 내 훌륭한 현모양처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1920년대에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인 1919년 3·1운동은 ‘조선인’이라는 식민지 민족의 존재 뿐 아니라, 선도적 계층으로서의

36)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84, 114쪽.

37) 진경옥, 『한국 여성 정치사』,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210쪽.

38) 이형량, 「근대 이행기 조선의 여성교육론」,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하야카와 노리요 외, 이은주 옮김, 하야카와 노리요 외, 이은주 옮김, 소명, 2009, 139쪽.

39)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10~11쪽.

지식인, 대중들의 집단적 힘, 그리고 행위 주체로서의 여성을 가시화한 사건이기도 했다. 3·1운동과 민족자결주의는 독립을 차세대에게 맡긴다는 과제 즉 실력 양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그 일환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현모의 육성을 강조하며 ‘현모양처주의’가 강화되었다.⁴⁰⁾ 그리고 그것은 1922년 『세계명부전』에도 반영된다. 다음 절에서는 위와 같은 성격의 일본어본을 참조로 탄생한 조선어본 『세계명부전』의 서사적 특성과 다른 텍스트와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세계명부전』의 젠더·시대·장르 간 비교

3.1. 서양 부인의 현모양처 서사

‘여성’은 ‘남성’과 조응하며 이루어진 개념이자 존재이기에 ‘여성전기’는 ‘남성전기’와의 비교 속에서 그 존재의 좌표를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한성도서 위인전기총서 속의 다른 남성 전기들과의 비교를 통해 『세계명부전』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남성 위인이 근대 국민국가라는 공공영역에 기여하는 “공인”으로 형상화되었다면 여성 위인은 이러한 남성 주체의 성장과 활약을 보조하는 인물로 자리매김 되었다. 전통적 미덕으로 간주되기 쉬운 현모양처형 서사가 ‘서구 부인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강화되었으며 그것은 결국 국민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확고히 했다. 1910년대 번안소설이나 신소설이 욕망에 충실했던 여성들이 결국 타락하고 회개하고 이후 “남자에게는 순종하고 자식에게는 희생하는 전통시대의 여인으로 변신”⁴¹⁾하는 인생행로를 그렸던 것과 달리, 여성 전기물

40) 홍금자, 『『기독교신보』에서 보는 식민지 조선의 비공식적 여성교육』,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소명출판, 2009, 161쪽.

41) 양문규,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에 나타난 일상성의 문제」, 『개화기에서 일제강

은 애초에 타락과 방종, 회개라는 고초 없이 이상적인 정신과 실천에 투철하게 되는 서사를 보여준다.

『세계명부전』은 여성 전기가 개인 단행본이 아닌 ‘열전’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점과 ‘현모양처 서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 따라서 그녀들의 전기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생활의 구분이 없이 연애나 결혼·가족사, 즉 남성과의 관계가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 개인 전기와 차별화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성도서의 위인전기총서 13권 중 11권이 남성 개인 전기이다. 『잔다르크』를 제외한 여성 전기는 『세계명부전』 한 권에 열전 형식으로 모아져 있다. 세세한 삶의 경험이나 내면까지 드러내기엔 역부족인 열전이라는 형식은 군집화된 삶의 서사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드러낸다. 따라서 25명의 주인공들은 몇 가지 여성상, 즉 어머니·아내·직업여성·구국의 여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⁴²⁾ 이는 당시까지 사회적으로 권고·장려된 이상적 여성상이 누적·종합된 것이다. ‘어머니·아내로서의 여성상’은 전통적 여성관에 뿌리내리고 있으나 근대 국가 형성기에 국민 교육을 통해 더욱 체계화·적극화되었고, ‘구국의 여성상’은 국권이 위협받던 한일합방 직전 동원되었으며, ‘직업 여성상’은 사회 전체의 생산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교육론과 함께 부각되었다. 즉, 역사적으로 주조된 이상적 여성 주체는 이렇게 가정·국가·사회라는 조직에 기여하는 인물이었다.

점기까지 한국 근대 일상생활과 매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24~25쪽.

42) 『세계명부전』은 15명 정도를 현모양처의 타이틀을 달지 않고 그들의 업적을 내세워 소개하는데 이들은 크게 혁명전쟁에 가담한 구국의 영웅·민중의 영웅인 ‘여결·용장·여웅(女雄)’류와 근대적 직업 여성으로 나뉠 수 있다. 그 직업은 소설가, 교육가, 화가, 시인, 과학자, 여류사회주의자, 사회개량운동가, 신문계·정치계의 여결, 박애자선가이다. 이들은 목차상 대체로 ‘현모양처형’, ‘구국의 여결형’, ‘직업 여성형’의 순서대로 나열되며 그 마지막 인물군은 과학자, 시인, 화가이다. 당시 여성의 직업으로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지 못하였던 터이므로 이러한 직업은 여성으로서 성공 가능한 영역을 제시하는 기능을 했을 것이다.

단행본 제목만 보아도 여성은 ‘婦’로 언급되는 존재이다. 목차의 제목 또한 25명 중 10명 정도가 ‘賢母’, ‘良妻’, ‘賢母良妻’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으며 호칭은 ‘~의 어머니’, ‘~의 처’, ‘~부인’, ‘~여사’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여성의 정체성은 ‘처’와 ‘어머니’이다. 그들은 조선에서 인지도가 높은 남선 인물인 ‘나폴레옹, 톨스토이, 비스마르크, 가리발디, 글래드스톤’ 등의 ‘어머니’나 ‘처’이기 때문에 소개될 수 있었다. 즉, 여성은 훌륭한 남성 위인을 양육해냄으로써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 ‘가리발디’나 ‘톨스토이’는 각기 한성도서 위인전기총서에서 『가리발디』와 『나의 참회』라는 단행본으로 독립되어 출간된 데 반해 그들의 아내나 어머니는 열전으로 묶여 소개되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 위인을 양육·보조하는 역할로 위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것이 젠더적 차이임을 증거한다.

본문은 ‘현모 웨슬레의 어머니’⁴³⁾부터 시작한다. 그의 남편은 교회 일과 저작에 몰두하여 집안일은 돌볼 틈이 없어서 그가 홀로 육아, 교육, 생계를 꾸려간다. 웨슬레라는 인물을 키운 것은 매일 일정 시간 수양과 교육에 힘쓴 “모다 그의 어머니의 힘”이었던 것이다. 그의 미덕은 “정신이 剛強한 우에 인내의 덕을 겸비”한 것이다. ‘나폴레옹의 어머니’편 역시 남편의 부족한 인격을 숨겨주고 그를 사랑·복종·공경한 아내로서, 또한 양육·교육·생계를 전담하여 잘 완수한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그린다. 이들 여성 전기는 수난을 수난으로 여기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그들의 ‘지혜로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패턴은 비단 웨슬레나 나폴레옹의 어머니 전기에만 해당되지 않고 다른 현모양처형 전기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된다. 이들 전기는 근면, 검약의 생활과 희생의 정신으로 남편과 자녀 교육의 임무를 완수한 여성들을 칭송하며 인생의 희노애락과 지

43) 춘성·양주 공편, 『세계명부전』, 한성도서주식회사, 1~15쪽

리멀렬함은 삭제한 채 계몽과 진보의 상승 곡선만을 담은 이상적 서사로 불합되어 있다.

『세계명부전』 중 직업여성 또한 새롭게 등장한 여성 인물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성 역할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빅토리아 여왕의 경우, “현모양처 빅토리아 여왕”이 소재목인 것처럼 그가 가정 내에서 아내로서의 지조와 어머니로서의 자녀 교육에 제 역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직분에도 소홀하지 않아 여성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국가적 업적 소개보다는 인덕과 가정사에서의 유능함을 강조하는 일화들이 주를 이룬다.⁴⁴⁾ 일국의 여왕의 전기가 이러하니 다른 직업군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인도 여시인 가미니 로이(Kamini, Roy)”편은 결혼 후 시작(詩作)을 중지하고 가정에서 이상적 아내이자 전형적 모친으로 전념하여 인도부인의 숭배자가 되었다는 결말을 맺는다. “화가 싹튼 부인”편 역시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에 기쁨을 느끼며 집에서 작업을 지속한 인물로 그려진다. 직업 부인들의 전기조차 이들이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충실했고 행복해했으며 그것은 직업적 영역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었고 사실상 사회적 직업보다 가정에서의 역할을 더 중히 여겼다는 식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이처럼 현모양처형 여성 전기는 남성 전기와 달리 성장이나 사회적 활동 및 업적보다는 결혼해서 이룬 가정을 중심으로 서술되며 이미 지혜로운 현숙한 여성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가정사 중심의 서술 비중은 ‘현모양처형’에서보다는 ‘구국의 여결형’, ‘직업 여성형’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남성 전기에 비하면 여전히

44) 빅토리아 여왕은 19세기 후반부터 영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 유명 여성 인사로 꼽혔는데 당시부터도 그녀는 소박함과 정숙함, 경건함을 갖춘 모범적 여성의 예로 그려졌다. 빅토리아 여왕은 가정 내에서의 책임을 잘 완수했으며 그곳에서 성취감과 행복을 찾았고, “여성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적은 없었다”고 찬미되어왔다. 조지 모스 지음,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내셔널리즈름과 섹슈얼리티』, 소명, 2004. 169쪽.

높다. 다음 장에 이어서 살필 ‘로란부인’의 경우도 ‘불란서 혁명의 꽃’으로 소개되지만 남편과의 결혼 이후 행복한 주부로서의 만족스러운 삶이 인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로란부인은 남편과 정치생활을 함께했으나 남편과 완전히 동등하게 행동하지는 않는 여성으로서의 ‘조신한’ 태도를 보인다. 남성의 전기와 여성의 전기가 서로 호환될 수 없는 삶의 서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전기는 성역할의 차이를 전제로 하고 서술되고 있음을 증거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남편이나 아들의 이름 덕분에 존재한다. 이로 인해 여성의 전기는 남성과의 관계 즉 연애나 배우자, 아들과의 관계에 무게 중심을 두게 된다.

이렇게 여성 전기가 가정을 책임지는 인물을 형상화한 반면 남성 전기는 사회적 인물을 형상화했다. 한성도서의 남성 전기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적을 위주로 서술되고 있었다. 대표적 예로 『프랭클린』과 『월손』은 어려서부터 “공공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공 사업” 및 “공익”에 기여한 “공인”으로 번역·소개되었다.⁴⁵⁾ 그런데 이러한 공과 사에 관한 규정과 경계는 무엇을 사적이라고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다.⁴⁶⁾ 식민지 조선의 ‘공과 사’에 관한 담론장에서 ‘사’에는 또 다른 의미, 바로 ‘가정’이란 단위가 존재했다. 개인을 가정으로부터 떼어내 국민의 일원으로 기능하게 하는 국민국가 담론은 물론이거니와 유교적 가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개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에서 역시 가정을 사적 영역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가정’은 ‘국가’와 ‘개인’ 양편에서 견제 받았을지언정 그 존재가 근본적으로 부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가정’이라는 현실적 시공간은 남성이 국민으로 개인으로 거듭나는 동안

45) 근대 국가 제도 속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공인’으로서의 조명된 남성 위인 전기 『프랭클린』에 관해서는 김성연 「근대 초기 청년 지식인의 성공 신화와 자기 계발서로서의 번역 전기물 : 프랭클린 자서전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의 연구』42집, 2010.10.)에서 상술했다.

46) 사이토 준이치 지음, 윤대석 외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35쪽.

‘어머니’와 ‘아내’에게 맡겨졌다. 공적 존재로서의 남성의 해방은 여성의 가정 종속을 전제로 가능했으며 종속지는 ‘미덕’을 칭찬받음으로서 독려된다. 양육과 교육, 살림, 부양에 국가가 복지의 차원에서 개입하게 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이므로, 국가도 남성도 맡지 않았던 이 영역을 온전히 책임질 가정의 수호자는 여성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유지되는 한 남성이 공적 자아로 성장하는 서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의 전기가 ‘공’적 영역을 담당할 ‘공인’으로의 성장·활약 서사였다면 여성의 전기는 ‘사’를 책임지는 모범 여성의 서사인 셈이다. 성별 역할 분업이 유지되는 한 ‘공-사’의 분리는 위협받지 않는다. 사회 전체를 위해 여성이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과 미덕은 여성 위인전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세계명부전』은 대체로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위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 전기와 비교할 때 그녀들의 전기에는 성장 과정이나 사회적 활약보다는 가정을 이룬 이후의 가정사, 가족 관계가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사회적 성공가로서 소개될 때에도 연애과 결혼, 가정사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두어 서술한다. 반면 남성 전기는 통상 사회 활동과 직업적 성취가 중점적으로 서술되며 그의 연애, 결혼 생활 및 가정사를 주로 다룰 때에는 ‘사생활’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⁴⁷⁾ 이처럼 가정사는 사적 영역이며 따라서 공적 인물로 위상을 정립한 남성 전기에서는 굳이 상세히 언급되지 않은 반면에 여성 전기에서는 그 삶 자체가 가정사와 분리되어있지 않는 것이다. 즉, 여성의 전기에서는 ‘공’과 ‘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비단 전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1920대부터 1930년대 대중 매체는 진기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으며⁴⁸⁾ 여성의 사적 생활을 대중적 읽을거리로서 공론의 장에서 소

47) 예를 들면 『뭇소리니의 가정생활-세계위인의 가정 풍경, 히틀러의 사생활 풍경』(『여성』, 39호, 1939).

비했던 것이다.⁴⁹⁾ 대중매체의 기사들은 개인의 ‘사생활’에 초점을 두고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켰으며 그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사적 영역을 통해 발견하려고⁵⁰⁾ 하는 풍토를 낳았다. 국가나 민족, 사회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담론과 공론·전망이 힘들어진 식민지 현실 속에서 삶에 관한 논의는 더욱 사사화(私事化)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식민지 현실과 대중의 욕망이 결합되어 여성의 사적 삶은 대중매체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여성의 삶을 다루는 여성 전기는 근대 국민 국가의 여성관을 토대로 하여 ‘서술될 필요가 있는’ 여성의 삶이 ‘서술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선별되었던 것이다.

3.2. 1907년에서 1922년으로 : 『라란부인전』에서 ‘로란부인’으로

『애국부인전』(1907)은 프랑스 전쟁 영웅 잔다르크(Jeanne d’Arc, 1412~1431), 『라란부인전』(1907)은 프랑스 혁명가 롤랑부인(Marie Jeanne Rolland, 1754-1793)에 관한 전기이다. 당시 대부분의 신소설이 여성의 정조를 서사 전개的主要 요소로 설정한 반면에 이 두 번역 전기는 여성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면모, 그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었다.⁵¹⁾ 당시로서 이 두 프랑스 여성의 전기는 신소설이 고수하던 전통적 여성관에 경종을 울림으로서, 남녀노소가 모두 분발하여 국가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목소리가 드높았던 불안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선동적 역할을

48) 김예림, 『조선, 별천지의 소비에서 소유까지-에로그로 취향과 식민지 근대의 타자 상상』, 『1930년대 후반 근대 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 2004, 263~275쪽.

49) 우미영, 『신여성 최영숙론-여성의 삶과 재현의 거리』, 『민족문화연구』45호, 2006, 315쪽.

50)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 『한국근대문학연구』13호, 2006, 186쪽.

51) 송명진, 『역사, 전기소설의 국민 여성, 그 상상된 국민의 실제-『애국부인전』과 『라란부인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6집, 2010.3, 252쪽.

하였다. 이렇게 혁명에 가담하는 적극적 여성상이 이 시기 이미 유입되었건만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시점 발간된 『세계명부전』에 현모양처 중심 서사가 지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사실 『세계명부전』의 잔다르크와 롤랑부인은 혁명에 가담한 여성이었지만 결코 여성다움과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났던 적은 없었다. 그들은 여성으로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낸 것이다. 혁명의 깃발의 선봉대에 서 있던 여성 혁명가의 이미지는 일상에서는 설 곳을 잃어 혁명 이후에는 인민의 어머니로서 변모,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⁵²⁾ 『애국부인전』의 잔다르크 역시 그녀의 남성성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발현될 때에만 사회적으로 칭송될 뿐이다.⁵³⁾ 전쟁 이외의 상황에서 잔다르크의 이른바 남성성·사회성·적극성은 경계되곤 한다. 이들 여성은 자신의 여성적 역할을 자각하며 남성을 보조하는 일을 자처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남녀가 유별함을 전제로 한다. 애국계몽기의 혁명적 여성 서사의 사정이 이러했으니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일상적 시공간에서 여성의 서사는 남성성이 거세된 채 그 일상적 직무에의 충실을 강조하는 식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관은 크게 변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대별 전기 번역·서술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세계명부전』 중 ‘불란서 혁명의 꽃 로란부인’ 편은 이전에 발간된 『라란부인전』⁵⁴⁾의 주인공 로란부인을 다루고 있

52) 조지 모스,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4, 159~182쪽.

53) 송명진, 위의 글, 255쪽. 『애국부인전』과 『라란부인전』의 젠더적, 국민국가적 해석은 송명진의 글 참조. 249~268쪽.

54) 1907(광무11)발간, 1908(융희2년)재간. 표지에는 “황성 남문안 박문서관 발행”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판권지란에는 “발행소 : 대한매일신문사, 발매원: 황성 남문안 박문서관 로익형”으로 표기되어 있다.

어 1907년과 1920년의 시차를 가늠할 수 있다. 이 둘은 기본적인 내용 구성과 진행이 일치한다. 단행본 전체 글자 수를 비교해보면 두 판본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지만⁵⁵⁾ 전기 본문의 분량은 차이가 난다. 『라란부인전』에는 논설조의 글이 3분의 1가량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라란부인전』에서 『세계명부전』으로 오면서 보인 가장 큰 변화는 텍스트 내에서는 서술자의 논설적 발화나 부언이, 텍스트 밖에서는 역자의 말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라란부인전』에는 ‘역자의 말’이 본문 앞과 뒤에 2쪽 가량, 그리고 “신스씨 같으디”로 시작하는 <부언>이 7쪽 가량 덧붙여 있었다. 이들 논설조의 글은 총 9쪽에 달하여 단행본 전체의 3분의 1이라는 적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언>에는 『라란부인전』 내용의 감격스러움에 대한 감탄과 ‘시세가 영웅을 만드나, 영웅이 시세를 만드나’라는 당대의 주요한 논쟁 주제, 그리고 로란부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프랑스 역사에 대한 요약과 평가 등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세계명부전』의 ‘로란부인’편에는 역자의 말이 따로 붙어있지 않다. 이렇게 1920년으로 오면 번역 전기물에서 부언이나 역자의 말은 삭감될 뿐 아니라 감정적 수식어나 감탄사 등도 대폭 줄어든다. 그밖에도 인명, 지명, 배경 등에 관한 세세한 정보는 더욱 정교화된다. 즉 1900년대에서 1920년대로 오면서 번안이나 축역이 아니라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전기의 객관적 서술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게 된 것이다.

부인이 우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라란부인전』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목에 메이고 말을 못하고 하여’ 서술자는 ‘슬프도다’까지 덧붙여 표현했던 반면에 『세계명부전』에 이르러서는 ‘눈물을 흘리디’로 간결히 되어 이에 할당하는 언어 소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⁵⁶⁾ 서술자의 감정 이입

55) 『라란부인전』은 1줄당 40자, 1쪽당 16줄, 총 34쪽이고 ‘로란부인’편은 1줄당 40자, 1쪽당 12줄, 총 43쪽이다.

과 감정적 서술이 가급적 배제된 ‘사실’ 위주의 전기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반면에 구체적인 정보나 인용, 사례들은 더 풍부해진다. 1920년대 판 ‘라란부인’전에는 1907년 『라란부인전』에서는 생략되었던 사실, 라란부인의 결혼 전 연애 이야기가 추가된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질이 좋지 않은 한 남자에게 호감을 가진 사연인데 이렇게 그녀의 인격이나 업적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일지라도 개인사로서 언급되게 되는 것이다. 위업의 행적이나 위대성을 극적으로 압축하는 일화 뿐 아니라 그와 다소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까지 전기에 기록하게 된 1920년대의 전기물은 인물의 신비화가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고 객관적 사실 기록물로서의 전기의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대중매체가 부추긴 사생활에의 관심을 반영한다.

3.3. 『세계명부전』 번역에서 『조선명부전』 창작으로

장도빈은 한성도서에서 『세계명부전』을 비롯한 번역위인전기 총서를 간행한 이후 자신의 출판사 고려관에서 조선 위인전기를 다수 저술한다. 『조선명부전』은 전통적 여성 교훈 서사를 계승하면서도 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능력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전통적 여성전에서 진일보한 존재로 평가받으며 소설이 아닌 열전의 양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56) 『라란부인전』: “부인이 홀연히 눈물을 먹읍고 거의 목이 매여 능히 말을하지 못하니 슬흐도다 그 굉장하고 맹렬한 위업과 일흠이 온 세상에 진동흔 라란부인이 이러트시 다정하고 인이흔줄을 위가 알앗스리오 헛더라”(22쪽)

『세계명부전』: “부인은 갑작히 눈물을 썩々 흘녔섯다. 양인과 자녀를 생각할 때에는 자유의 희생되는 용기도 안 해되고 어머니되는 감정에는 사라지는 듯하얏다.”(81쪽) 이와 같은 또 다른 예는 “평등을 사랑며 즈유를 사랑하며 공정과 의리를 사랑하며 간약함과 위인 것을 사랑흔 생각이 점점 타듯하고 살듯하야 더부인 흥중에 리 왕하나”(5쪽)가 있으니, 이 문장은 “평등 자유를 사랑하는 생각은 그의 마음에 가장 기대하든 것이었다”로 간략히 줄어든다.

서 차별화된다.⁵⁷⁾ 『조선명부전』이 전대 여성 전기를 계승하거나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에 『세계명부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구하기 위해서는 그 목차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여걸(女傑)-소서노(召西奴)-1
- 양처(良妻)-알영(閼英)-5
- 현모(賢母)-만명(萬明)-7
- 여정치가(女政治家)-선덕대왕(善德大王)-10
- 애국부인(愛國婦人)-지조(智照)-16
- 신녀(信女)-설씨(薛氏)-19
- 열녀(烈女)-도미부인(都彌夫人)-21
- 효녀(孝女)-지은(知恩)-24
- 여시인(女詩人)-허난설현(許蘭雪軒)-27
- 여화백(女畫伯)-신사임당(申師任堂)-27

이러한 『조선명부전』의 목차는 전통적 여성관과 근대적 여성관이 공존하는 1920년대의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선명부전』의 목차 인물명 앞에 붙은 수식어들을 보면 전통적인 여성의 미덕을 부각시킨 ‘양처, 현모, 신녀, 효녀, 열녀’가 있는 동시에 ‘여정치가, 여시인, 여화백’ 등 특정 분야에서 위업을 이룬 인물, 그리고 ‘여걸, 애국부인’과 같이 여성의 국가적, 사회적 업적을 부각시킨 인물도 공존한다. 이 중 목차의 앞쪽에 배치된 ‘소서노, 만명, 설씨, 도미부인, 지은’의 이야기는 『삼국사기』 열전에 실려 있던 것으로, 그 내용은 『삼국사기』에 실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⁵⁸⁾ 이들은 고대사에서 가져온 설화적 인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실존

57) 김지연, 『『조선명부전』에 반영된 여성인식』, 『여성문학연구』9호, 2003.6, 214~221쪽. 이 논문에 따르면 『조선명부전』이 나오던 시대에 발간된 다른 대표적 여성전은 『김씨열행록』(대창서관, 보급서관, 1919), 『만고효녀 박효랑전』(재전당서포, 1934)가 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유교 이념인 여성의 효(孝)와 열(烈)을 칭송하면서 송사소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 『조선명부전』은 근대적 의식을 보여주는 지점이 있다.

58) 김지연, 위의 글, 222~224쪽.

인물의 기록들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적 전기물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공적 영역에서 인정을 받은 여성의 존재들이 등장했다는 점은 이전의 여성 전기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 중 “여시인”, “여화백”으로 소개된 허난설헌과 신사임당은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보다는 재능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개방적인 여성 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이 항목에 『세계명부전』의 흔적이 있다. 『조선명부전』의 목차는 현모, 양처로 시작하고 여정치가, 여걸 등을 지나 ‘시인’과 ‘화백’으로 마무리하는데 이러한 구성은 『세계명부전』과 일치한다. 장도빈은 자신이 적극 관여했던 번역 위인전기총서 중 하나인 『세계명부전』의 구성을 참조로 하여 『조선명부전』의 인물 목록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⁵⁹⁾ 특히 『조선명부전』에서 유일한 직업 여성형으로 언급된 ‘여시인 허난설헌’과 ‘여화백 신사임당’은 『세계명부전』의 ‘인도 여시인 가미니 로이’ ‘화가 로사 여사’에 대응하는 존재이다. 『세계명부전』의 직업여성 중에는 ‘언론·정치·과학·성운동·사회운동’ 등 근대적 직업인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역의 인물을 아직 배출해내지 못한 조선의 상황에서 장도빈은 ‘시인’과 ‘화백’에 걸맞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다.

1925년 시점에서 신사임당이 ‘여화백’으로 소개된 것은 신사임당의 수용사적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조선시대에 율곡의 어머니로 주목되던 신사임당은 근대적 출판물에서는 1908년 『여자독본』에서 구국의 어머니로 등장했고 1926년 『조선여속고』에서는 “사족부녀(士族婦女)”로 지칭되었다.⁶⁰⁾ 따라서 1925년 『조선위인전』이 신사임당을 ‘여화백’으로 호명한 것은 다소 적극적인 태도였고 이러한 인물 소개 및 초점화에는 『세계명

59) 『조선명부전』에는 『세계명부전』에는 없던 ‘효녀’와 ‘신녀’가 등장한다.

60) 신사임당의 역사적 수용 변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발표문을 참조할 것. 김수진,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 신사임당을 중심으로」, 『분단체제하 남북한의 사회변동과 민족통일의 전망』, 국학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07.7.19~20쪽, 197~199쪽.

부전』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전시기까지 발간되던 여성 열전, 전기들은 대체로 중국 인물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조선인’ 여성 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는 서양 여성전기를 번역한 이후 벌어진 일로, ‘조선적인 것’, ‘국시(國詩)’를 창조하기 위하여 중국풍의 문학 전통을 버리고 서양의 것을 채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던 장도빈의 주장이 『세계명부전』 번역과 『조선명부전』 창작의 간행 경로를 통해 실천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내용과 구성을 갖춘 조선 여성 전기물의 탄생에 『세계명부전』은 영향을 주었다.⁶¹⁾ 조선은 세계 질서에 스스로를 편입시키면서 ‘민족의 보편과 특수성’을 확인하고픈 충동이 생긴 것이다.⁶²⁾

4. 결론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발간된 번역 여성 전기 『세계명부전』은 1880~1900년대 전후 영미 여성 전기를 기반으로 작성된 1900~1910년대 초 일본어본을 편집·번역한 것이었다. 이 여성 열전은 남성 전기와 비교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가정사를 포함한 사생활을 언급하고 있고 직업여성의 전기일지라도 현모양처로서의 미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남성 위인을 생산하는 데 보조하는 식으로 그 존재 의의가 드러난다는

61) 물론 이들 간의 차이도 있다. 『조선명부전』 역시 성장 순서, 즉 ‘출생 시기·지역, 부모, 성장, 결혼, 가정생활, 업적, 죽음’의 시간 순서로 서술되나, 어느 남성의 딸이고 아내이고 어머니인지를 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점은 『세계명부전』과 차이가 있다. 또한 『조선명부전』은 『세계명부전』에 비해 분량이 10분의 1로 각 인물 전기는 간략한 ‘약전’인데, 이에 따라 여성의 정체성이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방식이 더욱 압축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62) 앙드레 슈미트 자음, 정여울 옮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9, 55쪽.

특징이 있다. 젠더와 장르, 혹은 양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요청되는⁶³⁾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전기 서사가 각기 다른 정형화된 서사 패턴을 띄고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직업적 사회영역과 가족적 사생활 영역의 양극화’는 계급 해방이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한 특성으로⁶⁴⁾ 국적과 신분과 직업이 뒤섞여 나란히 나열된 한성도서의 위인전기 총서는 ‘공과 사’라는 영역 분담에 있어서 젠더적으로 차별적으로 서술되고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여성상의 다양한 사례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세계 명부의 열전은 이상적 여성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선도했다. 서양 여성의 전기는 전통적 여성관과 개화된 여성관이 공존하던 당시에 다양한 직업 여성을 소개하여 여성의 사회적 활약상을 제시한 측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었다. 즉 서양 여성 전기를 통해 현모양처의 여성상은 더욱 강화된 것이다. 그것은 “세계”라는 제목으로 불리웠으나 실상 ‘서양’이었고, 이들 근대 문명국가 여성들의 성공적 삶의 서사는 일종의 권위로서 자리 잡았다. 가정에 기반한 ‘성공한 여성/행복한 여성’을 형상화한 여성 전기물은 여성이 가정을 기본단위로 하는 근대 국민 국가의 일원으로 배치됨을 보여준다.

또한 『세계명부전』은 젠더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화·서구화·식민화의 문제를 담고 있다. 문명개화와 서구 추종·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달리던 명치 시대 일본 서적으로서 서양 부인 전기는 탄생되었고, 그것을 식민지 조선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용하였다. 따라서 『세계명부전』은 서구화라는 동양의 욕망과 일본의 필요, 그리고 식민지라는 조선의 조건이 만난 산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용된 『세계명부전』이라는 존재는 『조선명부전』에 영향을 미쳤으니, 조선의 자기 정체성 서사는 서구화·식민화라는 역사적 조건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63) 이혜령,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 2007, 252쪽.

64)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01, 27~28쪽.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동아일보』,

『서울』, 『학생계』, 『개벽』, 『삼천리』, 『여성』

춘성, 양주 공편, 『세계명부전』,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永山盛良, 『泰西名婦伝』, 勢陽堂, 1901.

松浦政泰. 『近世名婦伝』(大日本文明協會刊行叢書 ; 第13編), 大日本文明協會, 1909.

高須芳次郎 (梅溪) 著, 『東西名婦の面影』(家庭百科全書 ; 第32編), 博文館, 1911.

前田雪子著, 『偉人の妻』(家庭百科全書 ; 第37編), 博文館, 1912.

2. 단행본

김예림, 「조선, 별천지의 소비에서 소유까지-에로그로 취향과 식민지 근대의 타자 상상」, 『1930년대 후반 근대 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 2004, 263~275쪽.

노자영, 『유수낙화집』, 청조, 1935, 58~59쪽.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1』, 동아일보사, 1975, 421쪽.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84, 114쪽.

양문규, 「1910년대 『매일신보』소설에 나타난 일상성의 문제」,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 근대 일상생활과 매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24~25쪽.

이중연, 『‘책’의 운명-조선~일제 강점기 사회 사상사』, 혜안, 2001, 438~439쪽.

이형량, 「근대 이행기 조선의 여성교육론」,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하야카와 노리요 외 지음, 이은주 옮김, 소명, 2009, 139쪽.

이혜령,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 2007, 252쪽.

임경석 편저,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 논형, 2010, 1491쪽.

전경옥, 『한국 여성 정치사회사』,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210쪽.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147쪽.
- 홍금자, 『『기독신보』에서 보는 식민지 조선의 비공식적 여성교육』,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하야카와 노리요 외 지음, 이은주 옮김, 소명, 2009, 161쪽.
- 사이토 준이치 지음, 윤대석 외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35쪽.
- 앙드레 슈미트 지음, 정여울 옮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9, 55쪽.
- 우에노 치즈코 지음,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204쪽.
- 조지 모스 지음,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 2004, 169쪽.
-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01, 27~28쪽.

3. 논문

- 권보드래, 『1920년대 ‘연애’담론과 기획출판』, 『한국현대문학연구』27집, 2009, 7~30쪽.
- 김성연, 『한성도서주식회사 출간 번역전기물 연구』, 『상허학보』30집, 2010.10, 223~262쪽.
- „, 『근대 초기 청년 지식인의 성공 신화와 자기 계발서로서의 번역 전기물: 프랭클린 자서전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42집, 2010.10, 273~310쪽.
- 김수진,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 신사임당을 중심으로』, 『분단체제하 남북한의 사회변동과 민족통일의 전망』, 국학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07.7, 191~223쪽.
- 김중수, 『일제 강점기 경성의 출판문화 동향과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한성도서주식회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35, 2009, 247~292쪽.
- 김지연, 『조선명부전』에 반영된 여성인식』, 『여성문학연구』9호, 2003.6, 213~232쪽.
- 이태숙, 『1920년대 ‘연애’담론과 기획출판』, 『한국현대문학연구』27집, 2009, 173~180쪽.

-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 『한국근대문학연구』13호, 2006, 179~198쪽.
- 송명진, 『역사, 전기소설의 국민 여성, 그 상상된 국민의 실체 - 『애국부인전』과 『라란부인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6집. 2010.3, 249~268쪽.
- 우미영, 『신여성 최영숙론-여성의 삶과 재현의 거리』, 『민족문화연구』45호, 2006, 293~328쪽.
- 유선영, 『3·1운동 이후의 근대 주체 구성』, 『대동문화연구』66집, 대동문화연구원, 2009, 255~295쪽.
-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10~11쪽.

Abstract

World's Notable Women's Biography in the Colonial Chosun

Kim, Seong-yeon

Segye myongbu jeon, or World's Notable Women's Biography, which is composed of 25 western women's biographies, was publish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1922 to 1937, it was published 4 times, and it means it was steady a seller or best seller book. The translator, No JA-young, one of the best popular writers who wrote several bestseller books, took more than 4 Japanese women's biographies for editing and translating.

Comparing with the same publisher's men's biographies, this women's biography has some pattern. Although those women can be categorized by 'mothers', 'wives', and 'professional women', almost all the women were described as 'good wives and wise mothers'. While the men were portrayed as public men who worked devotedly for public interests, these women were described as house keeper even though she was a poet, a painter or a queen.

A diachronic study of Segye myongbu jeon, or World's Notable Women's Biography, shows us a history of women's biography. It was success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1900's books, and also affected Chosun women's biography, or Chosun Myongbu Jeon in the way of selecting the figures and focusing point. Japanese women's biography of western women had written by the English references, an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osun's modern commercial publisher edited and translated those Japanese texts. At last, it affected the narrative of the ideal models of Chosun women, and here is the issue of westernization and colonization.

Key Words : Translated Biography, Women's Biography, Westernization, Colonization, good wife and wise mother(Hyun mo yang che), World's Notable Women's Biography(Segye myongbu jeon), Chosun Notable Women's Biography(Chosun myongbu jeon).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